

좋은나무교회

May 20, 2018



평신도 후기

먼저 4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새벽기도회 “말씀 속으로” 성경듣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3월 18일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듣는 “말씀 속으로”가 4월 3일부터 6주동안 새벽기도회에서 4복음서를 들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속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디오를 통하여 성경말씀을 듣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매일 시편을 한편씩 듣고 난 후에 마태복음부터 4복음서를 순서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주동안 새벽기도회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읽을 때와는 달리 드라마 처럼 녹음해서 듣는 성경말씀은 더욱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본문 말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말씀이 있으면 언더라인을 하면서 듣고 또한 그날의 말씀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 때문에 성경말씀을 이해 하는데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속으로” 성경 듣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 닿아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 장 31 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7 장 17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태복음 17 장 20 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위의 성경말씀들 가운데 믿음이 작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작은 믿음을 생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일이면 4 복음서 “말씀 곳으로” 듣기가 끝이 납니다. 저의 바램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6 주동안 “말씀 속으로”를 함께 했던 우리 좋은 나무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낭독해 주신 성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 월 10 일 2018 년 신광옥 집사

목회자 후기

말씀 속으로를 마치고

저는 좋은나무교회 최성철 목사입니다. 저희교회는 부활주일을 마치고 4 월 10 일부터 5 월 18 일까지 6 주 동안 “말씀 속으로” 복음서 성경읽기를 하였습니다. 두 주 동안 교인들에게 교단에서 보내주신 동영상과 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혼자 읽을 의지가 부족한데 교회에서 새벽기도회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복음서를 읽는다는 사실이 많은 도전을 준 거 같습니다. 저는 평소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분들에게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자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조금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힘이 엄청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해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교인들에게 큰 경외감을 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 분들께서 정성스럽게 입체적으로 읽어주셔서 졸리지 않았고 지나치기 쉬운 말씀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 시작한 교인들 대부분이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말씀 속으로를 통하여 말씀기도를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목사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기도제목을 뽑아서 주었다면 이번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언더라인 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거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미주복음방송에서 같은 방식의 성경읽기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하고 있어서 참신하다든지 독창적이다든지 반드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말씀 속으로가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휴식을 주었고 제 자신이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에 대해서는 같은 목사로서 평가나 비교를 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니까 마음을 완전히 열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속으로를 마치면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성경 전체를 읽어볼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새벽기도회도 좋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 속으로를 한 후에 새벽기도회 포맷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설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새벽기도회였지만 힘들게 일어나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짧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읽기와 말씀기도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언을 한 장씩 교인들과 함독하고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를 소개해 주시고, 세미나와 장비를 제공해 주시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조언을 주신 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영적성장과 안식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